

中學校 學生과 學父母의 性教育 要求 調查研究 -수원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崔 順 姬 *

A Study on the Need for Sex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Suwon

Sun Hee,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ed for sex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For the data colle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0 to September 20, 1989 by using prepared questionnaire.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592 students of 1st, 2nd and 3rd grade from four middle schools and to 408 their parents in Suwon City.

The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

1. Among the 25 questions were asked about knowledge of sex, the structure of reproductive organs, physical change during puberty, menstruation, Sexually stimulation and family plan were answered correctly by over 50% of the students.

The higher the grade, the more the knowledge of sex.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is knowledge and with elder sister or brother.

Among the 20 questions were asked about knowledge of sex, sexually stimulation, pregnancy, emission, induced abortion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were answered correctly by over 50% of the parents.

2. 30 questions were asked about attitude of sex, 47.7% of the students and 53.4% of the parents answered 'positiv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ade and sex of studen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also found between years and education level of parents.

3. In case of students, experience of sex education was showed the structure of reproductive organs, physical change during puberty, temper during puberty, menstruation, emission more.

In the event of parents, Experience of sex education was showed the structure of reproductive organs, temper during puberty, menstruation, emission, relationship with opposite sex more. Most students felt that sex education should begin from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and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strongly.

In parents was showed the need for sex education from the primary school and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highly.

Namely, students and parents felt that sex education should begin from puberty.

To help good developments and growth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apid change should be educated sex education properly for the occasion.

*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I. 序論

1. 研究의 必要性

中學校에 在學中인 學生은 13 歲에서 16 歲사이의 年齡層으로 思春期에 해당된다. 思春期에는 身體的으로나 心理的으로 兒童期과 구별되며, 어른이 되어가는 過渡期로 身體의 및 心理的 變化를 겪어가는 時期이다.¹⁾ 이期間은 青年期의 前期²⁾에 해당하며 全生의 前半部이고 生의 準備期라 할 수 있다. 또한 人生의 그 어느 때보다도 成熟과 학습의 可能性이 풍부한 때이다. 思春期에 있는 中學生들은 2次 性微의 出現으로 인해 身體的으로 급격한 變化를 겪게 되며, 變化에 對한 知識의 부족을 느끼고 變化에 對한 適應過程에서 心理的 葛藤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性'에 관한 것은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性은 드러내어진 勢態보다는 간추어지고 隱密한 性格으로 認識되고, 隱性的이고 封鎖的인 條件에 의해 배워지고 있는 現實이다.

西獨의 Bennholz-Thomsen은 教育을 促進하는 因子중에 생활의 都市化 또는 文明화가 중요한 要因이며 都市의 생활과 環境에서 오는 연속적 刺激이 간뇌를 통해서 뇌하수체나 부신 피질계, 기타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³⁾하고 있다. 經濟, 社會 생활 수준의 양성과開放社會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건강 및 정서적인 成熟度가 많이 변화되어 初經 연령도 빨리지고 있다는 보고⁴⁾도 있으며, 教育期間의 연장 등으로 結婚年齡이 늦어지고 가족간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여행이나 大衆媒體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여 사회·性的인 행동의 變化가 초래되고 있다⁵⁾고 한다. 이런 諸般狀況이 종래의 자연스럽게 아는 것으로 解決되던 것과는 달리 性에 관한 교육을 要求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現代社會의 環境은 '性'을 快樂的인 측면으로 부각시키는 有害한 요소들이 汎濫하고 있다. 性道德의 문란과 大衆媒體 即, TV와 有線放送의 放送媒體, 出版物, 公演物, 음반, 비디오 그리고 방송광고물과 公演廣告物의 性的 자국을 그例⁶⁾로 들 수 있다. 그리고 社會가 都市化·

產業化되고 國民教育水準의 향상으로 점차 夫婦 중심의 核家族化로 부모의 權威弱化, 가족 구성원간의 對話 부족, 家族教育의 미흡, 經濟의 문제 등도 青少年의 心理的 葛藤을 助長하고 있다.⁷⁾

思春期 青少年의 内·外的 變化와 有害한 環境에의 露出은 이들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影響을 주어 한국 뿐만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露呈하고 있다. 最近 世界保健機構의 한 報告書에 의하면 全世界 青少年들이 當面하고 있는 性問題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첫째, 성교언령의 저하 둘째, 성병 증가 셋째, 원하지 않는 임신의 증가 넷째, 인공임신증진의 증가 다섯째, 출산의 증가 여섯째, 청소년증은 퍼염약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다.⁸⁾

英國에서의 15 歲 婦婦의 落胎가 1969年 1,000名당 2.63에서 1972年 6.50, 그 이후 15 歲少女 1,000名당 6.5에서 7.5 정도를 維持하고 있으며, 10 代의 出產母가 지난 20년 이후 700% 增加하였다는 報告⁹⁾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現象이 점차 일어나고 있음을 研究¹⁰⁾에서 指摘하고 있다.

이와 같은 社會環境 속에서 中學生들의 性教育은 매우 重要하며 이를 為하여 가장¹¹⁾과 學校의 役割이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家庭에서 父母중 어머니에 의한 性教育이 自然스런 삶의 過程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학교에서 教師들에 의해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教育이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中學生 및 이들 學父母의 性에 대한 知識, 態度 및 性教育要求把握은 매우 重要하다고 본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는 中學校 學生을 為한 性教育過程開發을 為하여 學生 및 學父母의 性에 對한 知識, 態度를 分析하고 이를 基礎로 性教育 要求를 把握하여 우리 나라 中學生 性教育의 基礎資料로 提供하고자 한다.

本 研究의 具體的 目的是 다음과 같다.

가. 中學生과 學父母의 일반적 特성별 性知識

程度를 分析한다.

- 나. 中學生과 學父母의 性教育 内容別 態度를 分析한다.
다. 中學生과 學父母의 性education 經驗과 希望時期를 把握한다.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및 調查方法

研究對象은 水原市內 18個中學校중 男子中學校 2個校와 女子中學校 2個校의 各學年 1班學生 전원인 680명이었으나, 이중 設問紙回收가 可能했던 592名이 本研究의 分析對象이 되었다. 그리고 學父母調查는 選定된 4個學校중에서 男女中學校各 1個校가 再選定되어 各學年別 2個班의 學生들의 어머니 총 600명 중 設問紙의回收가 가능했던 408名이 研究對象이 되었다.

調査方法은 設問紙를 活用하였으며 이는 事前調查되어 各問項의 内容^{12) 13)}과 용어의 理解程度, 難易反応을 참고로 修正補完되어 完成되었다.

資料蒐集期間은 1989年 9月 10日부터 同年 9月 20日까지 11日間이었다.

資料蒐集은 調査對象學校를 방문하여 體育時間에 研究의 目的과 趣旨 및 앞으로의 研究活用方案에 對하여 學生들에게 充分히 說明한 후 設問紙를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回收하는 方法으로하였다.

학부모 設問紙는 學生을 通하여 가정으로 配布, 回收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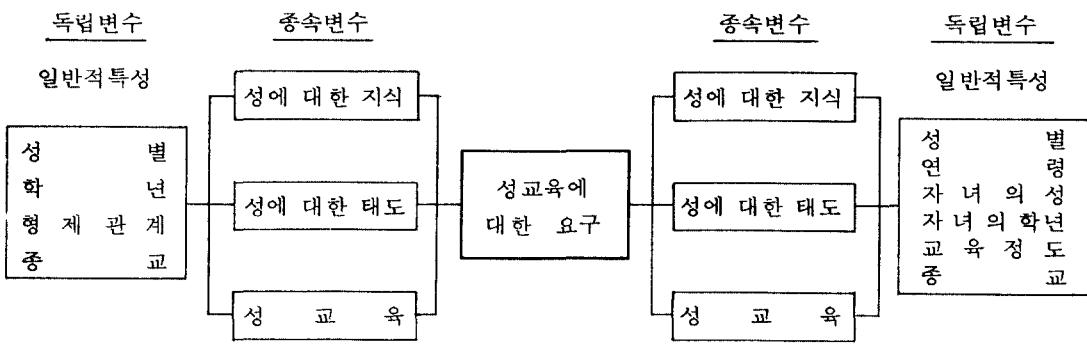
2. 設問紙 内容

本研究에 使用된 設問紙項目은 學生 대상 設問의 경우 知識 問項은 O, X형과 사지선다형 문제 25개, 性에 관한 態度 問項은 30개로 각 문제마다 4개의 보기를 제시하여 4point scale로 应用하였다. 그리고 性education을 빙은 경력을 調査하기 위하여 性education 内容을項目別로 나열하여 배운 것에 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項目에 대하여 學校에서 性education을 할 때 教育받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學年에 표시하게 하였다.

學父母 대상의 設問은, 知識 問項은 O, X형 문제 20개이고, 性에 대한 態度 問項은 學生의 것과 同一하다. 性에 대한 子女 education經驗을 묻는項目도 그 内容이 學生의 것과 같으며, 가르친項目에 表示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education項目別, education을 원하는 時期를 묻는 問項도 學生의 것과 같은 内容을 배열하여 表示하게 하였다. 學生 및 學父母의 一般的 特性 問項도 包含하였다.

3. 資料分析

本研究의 資料는 그림 1과 같은 틀에 의해서 分析하였다. 從屬變數를 學生과 學父母의 性에 대한 知識과 態度와 性education 經驗으로 하고 獨立變數는 學生의 경우 性別, 學年, 弟兄關係, 宗敎이며, 學父母의 경우 性別, 年齡, education程度, 宗敎, 子女의 性別과 學年으로 하였다. 이들 各獨立變數에 따른 從屬變數와의 關係分析은 SPSS-PC⁺를 利用하여 처리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III. 分析結果 및 考察

1. 一般的 特性

本調查對象者中 中學生의 境遇 性別 分布는 且 1-1 과 같이 男學生 39.9 %, 女學生 60.0 % 였다. 學年別 分布는 1學年이 32.1 %, 2學年이 29.1 %, 3學年이 38.0 %였다. 弟兄關係 分布는 손위 弟兄나 姉妹가 있는 學生이 42.9 %로

없는 學生이 더 많았다. 宗教 分布는 基督敎와 天主敎를 합쳐서 46.0 %로 가장 많았고 無宗教가 28.0 %였다.

學父母 應答者는 모두 女性이었고 年齡은 40代가 62.3 %로 가장 많았다. 宗教는 佛教가 37.7 %, 無宗教가 20.8 %였다. 教育程度는 中卒 35.0 %, 高卒 44.9 %등의 分布를 보이고 있다(且 1-2 參照).

< 且 1-1 >

學生의 一般的 特性

	1학년		2학년		3학년		무응답		계	
	No.	%	No.	%	No.	%	No.	%	No.	%
성별										
남	85	14.4	51	8.6	97	16.4	3	0.5	236	39.9
여	104	17.6	121	20.4	128	21.6	2	0.3	355	60.0
무응답	1	0.2	-	-	-	-	-	-	1	0.2
형제관계										
있다	64	10.8	78	13.2	111	18.8	1	0.2	254	42.9
없다	124	20.9	91	15.4	114	19.3	4	0.7	333	56.3
무응답	2	0.3	3	0.5	-	-	-	-	5	0.8
종교										
불교	53	9.0	43	7.3	45	7.6	-	-	141	23.8
기독교	56	9.5	48	8.1	78	13.2	2	0.3	184	31.1
천주교	31	5.2	28	4.7	29	4.9	-	-	88	14.9
기타	3	0.5	2	0.3	1	0.2	-	-	6	1.0
무종교	47	7.9	44	7.4	72	12.2	3	0.5	166	28.0
무응답	-	-	7	1.2	-	-	-	-	7	1.2
계	190	32.1	172	29.1	225	38.0	5	0.8	592	100.0

< 표 1-2 >

學父母의 一般的 特性

	30 ~ 39		40 ~ 49		50 ~ 59		60 ~		무 응답		계	
	No.	%	No.	%	No.	%	No.	%	No.	%	No.	%
<u>종교</u>												
불교	54	13.2	95	23.3	3	0.7	1	0.2	1	0.2	154	37.7
기독교	36	8.8	55	13.5	6	1.5	-	-	1	0.2	98	24.0
천주교	14	3.4	28	6.9	2	0.5	1	0.2	-	-	45	11.0
기타	2	0.5	2	0.5	-	-	-	-	-	-	4	1.0
무종교	22	5.4	60	14.7	1	0.2	1	0.2	1	0.2	85	20.8
무응답	5	1.2	14	3.4	-	-	1	0.2	2	0.5	22	5.4
<u>교육정도</u>												
무학	1	0.2	2	0.5	-	-	1	0.2	-	-	4	1.0
국졸	12	2.9	26	6.4	3	0.7	-	-	3	0.7	44	10.8
중졸	46	11.3	91	22.3	6	1.5	-	-	-	-	143	35.0
고졸	67	16.4	110	27.0	2	0.5	2	0.5	2	0.5	183	44.9
대졸	6	1.5	24	5.9	1	0.2	1	0.2	-	-	32	7.8
대학원졸	-	-	1	0.2	-	-	-	-	-	-	1	0.2
무응답	1	0.2	-	-	-	-	-	-	-	-	1	0.2
계	133	32.6	254	62.3	12	2.9	4	1.0	5	1.2	408	100.0

2. 性에 對한 知識

性에 對한 知識은 學生의 境遇, 25 개 問項을 통한 성지식의 內容別 각 學年 학생들의 正答率은 표 2 와 같다. 生殖器의 構造와 人體의 變化에 64.4 %, 月經에 57.0 %, 家族計劃에 55.9 %, 性衝動에 51.3 %로 50 %以上의 正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非正常的 性行爲에 25.7 %, 思春期 情緒에 25.3 %, 自慰行爲에 19.3 %로 비교적 낮은 正答率을 보였다. 특히 自慰行爲에 가장 낮은 正答率을 보이고 있으며 이 項目은 性에 관한 相談에서도 가장 자주 問疑해온 分野로 보고¹⁰⁾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最初 自慰行爲經驗 平均 年齡이 男子 15세, 女子 15.3 세로 報告¹⁴⁾ 되었음을 볼 때 知的 要求가 매우 높은 項目임을 알 수 있다.

學年別, 性別 知識程度는 25 개 문항에 대한

정답수 平均值로 산출하였다(표 3 참조). 學年別로 知識程度는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0$). 1983년 黃¹⁵⁾의 研究에서 性에 對한 知識과 學年과의 관계가 意味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1986년 李¹⁶⁾의 研究에서도 學年이 높을수록 性에 關한 知識程度가 높음을 報告하고 있다. 이는 思春期를 겪는 過程에서 能動的으로 알고자 하는 本人들의 요구와 學齡이 높아짐에 따른 知識 番積의 結果로 보인다.

學年別 兄弟有無에 따른 知識程度는 표 4 와 같다. TUKEY의 多重比較法(HSD TEST)에 의한 有意水準 5 % 하에서 형이나 언니가 있는 學生과 없는 學生間 知識平均에 有意한 차이는 없었다. 1981년 조¹⁷⁾의 研究에서 性知識을 週間誌나 雜誌를 通해서 얻은 學生이 全體의 57.6 %였고 라디오나 TV를 通해서 얻은 學生이 43.6

<표 2>

學生의 知識內容의 學年別 正答率

지식의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	59.7%	62.6%	71.1%	64.4%
월경	43.4%	58.7%	68.7%	57.0%
사정	27.9%	32.8%	48.2%	36.8%
성동	40.5%	49.7%	62.7%	51.3%
자위행위	14.2%	17.4%	25.3%	19.3%
임신	36.1%	50.1%	57.1%	47.8%
임	20.3%	58.1%	48.7%	33.4%
인공임신중절	25.0%	51.2%	38.9%	30.2%
성병	46.8%	32.9%	48.6%	34.1%
비정상적 성행위	28.4%	18.6%	29.3%	25.7%
사춘기정서	14.7%	25.0%	35.1%	25.3%
가족계획	44.7%	66.9%	58.2%	55.9%
계	34.8%	42.3%	53.1%	43.1%

<표 3>

學生의 學年別 性別 知識程度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남	8.0	4.4	9.6	4.8	12.3	4.4
여	9.2	3.9	10.9	4.1	14.1	4.2
계	8.7	4.2	10.5	4.4	13.3	4.4

$$F = 60.96 \quad P = 0.00$$

%, 父母를 通해서 얻은 境遇가 5.6%였으며 선생님을 通해서 얻은 境遇가 9.1%에 不過했다는 報告와, 1985년 李¹⁸⁾의 研究에서도 性知識 根源은 週刊誌, 雜誌, 教師, 親舊의 順으로 報告되었으며, 1985年 金¹⁹⁾의 研究에서 性知識의 媒介體로 月刊雜誌가 36.9%로 가장 많았다는 報告와, 1986年 金²⁰⁾의 研究에서 性에 대한 知識의 根據가 男女學生 공히 雜誌 46.1%, 그 다음이 친구 40.8%로 나타내는 반면 선생님을 通한 性知識習得은 2.1%에 不過했다는 報告와, 1987년 李²¹⁾의 研究에서 性知識의

根源은 친구, 雜誌, 映畫, 週刊誌였고, 1988년 金¹⁴⁾의 研究에서 中高等學生이 性知識을 主로 週刊誌나 雜誌 등 책자와 친구로부터 얻은 比率이 43.0%, 반면 教師나 父母로부터 얻은 比率이 13.5%로 적어 學生들이 正確하고 科學的인 性知識을 傳達받은 比率이 적었다는 報告와, 1988年 李²²⁾의 研究에서 性에 관한 知識은 친구, 雜誌 및 書籍類에서 얻었다는 報告 등을 통하여 볼 때 형이나 언니로부터 正確한 性知識을 傳達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韓國家庭의 雰圍氣上 家族 또는 兄弟姊妹간에 性에 관한 對話

<표 4>

學生의 學年別 兄弟有無에 따른 知識程度

형제 관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있 다	6.8	3.7	8.3	4.2	12.4	4.5
없 다	9.3	4.4	11.3	4.2	13.9	4.2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그 理由中 하나로 보인다。家庭, 學校, 社會가 三位一體되어 教育이 이루어진다²³⁾고 볼 때, 學校에서의 性教育이 바람직하게 實施된다면 學生 당사자는 물론 그 學生의 동생, 나아가서 家族 그리고 10餘年 後에 家庭을 이루었을 때 그들 2세의 教育에까지 影響을 미칠 것이다。이런 觀點에서 性education은 더욱 더 必要性이 절실하다고 본다。

學父母의 경우, 20개 問項을 통한 성지식의 内容別 각 年齡에 따른 正答率은 표 5와 같다。人工妊娠中絕에 64.7%, 性病에 63.5%, 射精에 61.5%, 妊娠에 59.4%, 性衝動에 53.4%로 50%以上의 正答率을 보이고, 避妊에 27.7%로 낮은 正答率을 보이고 있다。避妊과 韓國既婚女性의 人工妊娠中絕 실태에 관한 報告²⁴⁾²⁵⁾

를 連結시켜 볼 때 避妊에 대한 낮은 知識程度와 높은 人工妊娠中絕 經驗率은 學父母 역시 性教育을 받지 못했음에 緣由하는 것으로 보인다。學父母의 知識程度는, 生殖器의 구조와 人體의變化에 40% 내외의 正答率과 자위행위에 40% 정도의 正答率을 보이므로써 學生들의 知的 요구가 높은 항목에 낮게 나타났다。

學父母 年齡別 教育程度에 따른 知識程度는 20개 문항에 대한 정답수 평균치로 산출하였다(표 6 참조)。學父母의 연령별 教育程度에 따른 知識程度는 高卒과 大卒 學父母 간에만 有意한 차이가 있었다。이는 學父母 世代도 體系의이고 정규적인 性education을 받지 못했으며 뒤기 個人的의 經驗과 本人의 관심 그리고 家庭, 體育, 生物, 教練 등 關聯教科²⁶⁾의 修學程度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學父母의 年齡別 性知識 内容에 따른 正答率

지식 내용	30 ~ 39	40 ~ 49	50 ~ 59	60 ~	계
생식기의구조와인체의변화	41.4%	44.2%	47.2%	33.3%	42.7%
성 충 동	51.9%	54.3%	66.7%	75.0%	53.4%
임 신	60.9%	59.8%	58.3%	62.5%	59.4%
성 교	48.9%	50.0%	41.7%	50.0%	48.8%
사 정	59.0%	64.4%	54.2%	62.5%	61.5%
자 위 행 위	44.4%	47.6%	41.7%	50.0%	45.8%
인 공 임 신 중 절	73.7%	61.0%	66.7%	75.0%	64.7%
성 병	59.4%	66.3%	75.0%	66.7%	63.5%
피 임	29.7%	26.2%	25.0%	100.0%	27.7%
월 경	40.6%	50.8%	66.7%	100.0%	47.8%
계	51.6%	53.3%	55.0%	63.8%	52.2%

〈표 6〉

學父母의 年齡別 教育程度에 따른 知識程度

교육정도	30 ~ 39		40 ~ 49		50 ~ 59		60 ~		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무 학 졸	6.0		8.6	3.1	11.3	3.1	-	-	8.3	2.6
국 졸	10.9	2.7	11.4	3.2	10.8	2.6	-	-	9.6	3.2
중 졸	9.3	3.5	13.3	2.9	8.5	2.1	12.0	4.2	9.6	3.5
고 졸	10.8	3.4	14.0	-	14.0	-	8.0	-	11.1	3.3**
대 졸	13.5	1.9	-	-	-	-	-	-	13.3	2.8***
대 학 원 졸	8.0	2.8	-	-	11.0	-	-	-	14.0	-
									10.6	3.5

$$F = 9.18 \quad P = 0.00$$

3. 性에 對한 態度

성에 대한 태도문항은 30개이고, 각 문항마다 긍정의 의미가 강한 보기 1에서 부정의 의미가 강한 보기 4까지 제시하고 보기 1에 1점, 보기 2에 2점, 보기 3에 3점, 보기 4에 4점을 배정하였다. 性에 대한 態度를 分析해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學生의 경우 生殖器의 構造와 人體의 變化에 全體의 54.9%의 學生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態度임을 알 수 있다.

1984년 鄭²⁷⁾의 研究에서 性의 고민에 性成熟의 正常여부가 24.0%로 수위로 나타내는 報告와, 1985년 李¹⁸⁾의 研究에서 中學生中 成長狀態가 正常인지 어쩐지 몰라서 고민하는 學生이 40.6%로 成長에 대한 이해 不足이 고민하는 性問題에 수위를 차지하는 보고 등을 통해 想春期의 變化를 정상적인 成長過程으로 認識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問題로 認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肯定的이고 正常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性教育의 不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8년 李²²⁾의 研究에서 중학생들이 月經을 자랑스럽다와 自然스런 現象으로 48.1%를 응답한 報告보다 本 研究에서는 68.1%로서 높은 肯定的 態度를 보였다. 射精에 自然스럽게 느끼는 學生이 44.6%로 나타났는데 夢精이 자랑스럽다와 自然스런 현상에 73.2%로 나타난 보고에 비해 낮은 肯定的 反應이었다. 性衝動에 56.3%의 學生이 否定的 態度를 보였는데 性

衝動이 中學校 男學生 11.3%가 應答하여 성에 관한 고민중 1위를 나타내고 中學校 女學生 2.1%가 應答한 報告 등을 볼 때 성에 관한 無知에서 否定的 態度를 갖게 되며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自慰行為는 當然하다고 느끼는 學生이 19.1%로 나타났는데 1988년 金¹⁴⁾의 研究에서 自慰行為를 許容하거나, 때에 따라 許容할 수 있다에 15.3%를 보인 報告와 中學生의 性問題에 관한 고민거리에서 自慰行為가 10.4%를 차지한 報告를 볼 때 많은 學生들이 自慰行為에 대하여 否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體系的의 性教育이 要望되는 項目으로 보인다. 性交際에는 좋다고 느끼는 學生이 76.8%로 긍정적 믿음을 보였다. 1983년 黃¹⁵⁾의 研究에서 이성교제를 하고 싶다에 61.6%가 反應한 報告와, 1984년 鄭²⁷⁾의 研究에서 異性交際에 대한 意識은 交際하고 싶다에 56.5%가 應答한 報告, 1985년 李¹⁸⁾의 研究에서 이성교제에 61.8%의 學生이 希望한다는 報告, 1986년 李¹⁶⁾의 研究에서 이성교제에 대하여 中學生 92.5%가 肯定의라는 報告, 1988년 李²²⁾의 研究에서 이성교제에 希望한다에 46.4%가 應答한 報告, 1988년 金¹⁴⁾의 研究에서 이성교제에 許容과 때에 따라 許容에 83.9%의 學生이 應答한 報告 등을 볼 때 中學生中 많은 學生들이 異性交際에 肯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으며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강한 관심만큼 異性交際

는 성적 고민에서도 27.6 %를 차지하는 1위의 문제라는 1984년 鄭²⁷⁾의 研究에서의 보고도 있다. 結婚은 해야 한다에 88.7 %로 1984년 鄭²⁷⁾의 研究에서 結婚에 대한 意識調查중 해야 한다에 41.8 %와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에 32.1 %가 답한 報告보다 높은 肯定的 반응을 보였다. 이는 異性交際에 대한 態度와 聲關하여 異性에 대한 좋은 느낌이 結婚에도 높은 긍정적 反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性交에는 44.1 %의 學生이 긍정적 反應을 보였는데, 1984년 鄭²⁷⁾의 研究에서 性行爲에 대한 意識調查중 신성한 것이다에 32.7 %로 나타난 보고보다 높은 肯定的 반응이었다. 婚前 性行爲는 된다에 16.0 %의 學生이 응답하였는데, 1988년 金¹⁴⁾의 研究에서婚前 性行爲를 許容한다와 떼로 許容할 수 있다에 10.9 %를 나타낸 報告보다 높은 肯定的 반

응이었다. 婚前 性行爲가 안된다에 82.9 %의 學生이 응답하였는데 1985년 李¹⁸⁾의 研究에서 結婚前 純潔을 꼭 지켜야 한다에 62.6 %가 응답한 보고와 1988년 李²²⁾의 연구에서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에 남학생 60.9 %, 여학생 82.0 %와 境遇에 따라 지킬 수도 안지킬 수도 있다에 남학생 27.2 %, 여학생 14.6 %가 應答한 報告와 比較할 때 유사한 應答이었다.

8과 같다. 태도 문항에 대한 각 문항별 점수를 보면, 3점 이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인 항목은 1학년 14개, 2학년에 8개, 3학년에 8개였다. 특히 생식기 청결, 가족계획, 결혼, 남녀평등 항목은 2점 이하로 긍정적이었다. TUKEY의 多重比較法(HSD TEST)에 의한 有意水準 5%이하에서 각 學年 간에 有意한 차이는 없었다.

<표 7>

學生의 性行爲에 대한 態度

태도 내용	긍정	부정	태도 내용	긍정	부정
생식기의구조와 인체의 변화	43.9 %	54.9 %	출산	77.1 %	22.3 %
사춘기 정서	68.4 %	31.4 %	가족계획	93.7 %	5.9 %
월경	68.1 %	31.6 %	피임	37.7 %	60.8 %
사정	44.6 %	52.8 %	인공임신중절	17.4 %	80.7 %
성충동	43.1 %	56.3 %	혼선성행위	16.0 %	82.9 %
자위행위	19.9 %	78.6 %	혼외성행위	22.5 %	76.6 %
생식기 청결	91.7 %	6.5 %	매매음	8.8 %	90.7 %
성병	12.1 %	87.2 %	동성애	14.5 %	84.4 %
이성교제	76.8 %	22.6 %	성피해	27.5 %	71.4 %
결혼	88.7 %	10.6 %	음란필름, 출판물	18.0 %	81.8 %
이혼	66.7 %	33.3 %	남녀평등	70.6 %	29.2 %
성교	44.1 %	54.1 %	계	47.7 %	51.4 %
임신	71.9 %	27.2 %			

* 무응답 제외

<표 8>

學生의 態度 문항에 관한 학년별 態度程度

태도문항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궁	2.8	1.0	2.7	0.8	2.6	0.7
음모	3.0	1.3	3.0	1.3	2.8	0.8
난소	2.7	1.2	2.6	0.8	2.4	0.7
사춘기정서	2.4	1.0	2.2	0.7	1.9	0.7
음핵	2.9	1.3	2.9	1.1	2.8	0.9
2차성정	2.2	1.0	2.1	0.9	1.9	0.8
음경	3.0	1.5	3.0	1.3	2.8	1.0
월경	2.4	1.0	2.2	0.9	2.1	1.0
고환	2.9	1.3	2.9	1.1	2.6	0.9
사정	3.1	1.6	2.8	1.2	2.5	1.1
성동	2.9	1.2	2.8	0.9	2.6	1.0
성교	3.0	1.5	2.7	1.0	2.6	1.1
자위행위	3.4	1.3	3.3	1.0	3.0	0.9
임신	2.2	1.2	2.3	1.0	2.2	1.0
생식기청결	1.9	1.5	1.5	0.7	1.6	1.3
출산	2.2	1.1	2.1	0.9	2.1	1.0
이성교제	2.3	1.1	2.2	0.8	1.9	0.8
가족계획	1.7	0.9	1.5	0.6	1.6	0.8
결혼	1.6	0.4	1.6	0.3	1.6	0.4
폐임	3.2	1.5	2.8	1.0	2.5	0.9
임공임신중절	3.3	1.4	2.9	0.8	3.1	0.9
동성애	3.4	1.2	3.1	0.8	3.5	0.9
혼전성행위	3.3	1.2	3.3	1.0	3.3	0.9
성파해	3.1	1.4	2.9	0.9	2.9	0.9
혼전성행위	3.4	1.3	3.3	0.9	3.1	1.0
음란출판물	3.4	1.0	3.3	0.9	3.1	0.8
매매음	3.4	1.0	3.6	0.8	3.6	0.8
남녀평등	2.0	0.9	1.9	0.9	2.1	1.0
성병	3.5	1.2	3.3	0.9	3.5	0.8
이혼	2.5	0.9	2.4	0.8	2.5	0.8
계	77.8	-	77.6	-	75.7	-

學生의 學年別 男女別 態度程度를 把握하기 위한, 태도문항의 학년별 평균은 표 9와 같다. TUKEY의 多重比較法(HSD TEST)에 의한 有意水準 5%하에서 平均 態度의 程度에 有意한 차이는 없었다.

學父母의 性에 대한 態度를 分析해 보면 표10과 같다. 生殖器의 構造와 人體의 變化에 30.0%의 학부모가 否定的 態度를 보였는데 學生의 54.9%보다 훨씬 肯定的임을 알 수 있다. 月經에는 84.9%가 自然스럽다에 응답하여 學生의 68.1%보다 肯定的 態度를 보였다. 射精에도 72.5%가 自然스럽다에 應答하여 學生의 44.6

%보다 肯定的 態度를 보였다. 그러나 異性交際에는 68.8%가 좋다에 應答하여 學生의 76.8%보다 낮은 肯定的 態度였다. 이는 1988년 金¹⁴⁾의 研究에서 異性交際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 중 許容한다에 25.2%, 때에 따라 許容한다에 27.0%를 나타낸 보고보다 높은 肯定的 態度를 보였다. 婚前 性行爲는 된다에 7.1%가 應答하였는데 이는 婚前 性行爲를 許容한다에 0.8%와 때로 許容할 수 있다에 1.6%를 應答한 報告보다 높은 肯定的 態度를 보였다. 避妊은 해야 한다에 82.4%가 應答하였고, 人工妊娠中絕은 해서는 안된다에 70.8%가 應答하였다. 避妊과 人工妊娠

<표 9>

學生學年과 성별에 따른 態度程度

성 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남	2.5	0.3	2.4	0.3	2.4	0.3
여	2.8	0.4	2.7	0.3	2.6	0.3

<표 10>

學父母의 性에 대한 態度

태도내용	긍정	부정	태도내용	긍정	부정
생식기의구조와 인체의 변화	67.5%	30.0%	임신	76.4%	22.5%
사춘기 정서	82.8%	15.9%	출산	84.3%	15.2%
월경	84.9%	14.5%	가족계획	96.6%	2.2%
사정	72.5%	25.3%	피임	82.4%	15.5%
성충동	70.3%	25.5%	인공임신중절	27.7%	70.8%
자위행위	27.0%	69.9%	혼전성행위	7.1%	91.2%
생식기 청결	97.3%	1.2%	혼외성행위	15.7%	80.9%
성병	5.4%	93.9%	매매음	1.7%	90.4%
이성교제	68.8%	22.8%	동성애	4.6%	94.4%
결혼	95.9%	2.5%	성피해	16.7%	82.3%
이혼	58.8%	40.2%	음란필름, 출판물	5.6%	93.6%
성교	61.3%	36.3%	남녀평등	70.8%	29.2%
			계	53.4%	44.4%

* 무응답 제외

妊娠中絕에 대한 應答內容과 1989년 임²⁴⁾의 研究에서 人工妊娠中絕이 有配偶婦人의 경우 1978년 한해 동안 約 631,000건, 1984년에는 528,000건, 그리고 1987년 424,000건으로漸次 人工妊娠中絕이 減少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아

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報告를 연결시켜 본다면 父母도 避妊娠方法에 對한 을 바르고正確한 知識普及과 避妊娠法 使用上의 철저한指導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學父母의 態度問項에 관한 年齡別 態度程度 표11

<표 11>

學父母의 態度問項에 관한 연령별 態度程度

태도문항	30 ~ 39		40 ~ 49		50 ~ 59		60 ~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자궁	2.2	0.9	2.2	0.8	2.1	0.5	1.8	0.5
음모	2.9	1.5	2.9	1.4	2.4	1.0	2.3	1.0
난소	2.1	0.8	2.1	0.9	1.9	0.5	1.5	0.6
사춘기정서	2.1	1.0	2.1	1.0	1.9	0.5	1.8	0.5
음핵	2.7	1.4	2.6	1.3	2.6	0.8	2.0	0.8
2차성징	1.8	0.9	1.8	0.9	2.5	2.1	1.3	0.5
음경	2.6	1.3	2.7	1.4	2.3	0.8	1.8	0.5
월경	1.9	1.0	1.9	0.8	2.4	2.2	1.3	0.5
고환	2.4	1.4	2.6	1.5	2.3	0.7	2.0	0.8
사정	2.3	1.2	2.3	1.2	2.3	0.5	1.8	0.5
성충동	2.4	1.4	2.5	1.6	2.2	0.4	2.0	0.8
성교	2.4	1.2	2.6	1.3	2.1	0.7	2.0	0.8
자위행위	3.0	1.3	3.1	1.3	2.8	0.9	3.0	1.4
임신	2.1	1.1	2.2	1.0	2.3	0.9	2.0	0.8
생식기청결	1.4	1.1	1.4	1.1	1.3	0.5	1.3	0.5
출산	2.0	1.0	2.0	0.9	1.8	0.6	1.8	0.5
이성교제	2.7	1.9	2.8	2.0	3.0	2.1	1.8	0.5
가족계획	1.4	0.8	1.5	1.1	1.4	0.7	1.8	1.5
결혼	1.7	0.5	1.7	0.4	1.2	0.6	1.5	0.3
피임	2.0	1.4	1.9	1.3	2.7	2.1	1.8	1.0
인공임신중절	3.0	1.0	2.9	1.1	2.9	1.7	2.8	1.3
동성애	3.7	1.0	3.7	0.7	3.8	0.6	3.0	1.4
혼전성행위	3.4	1.1	3.5	0.9	3.7	0.7	2.5	1.0
성피해	3.1	0.9	3.1	0.9	3.6	1.9	2.5	1.0
혼외성행위	3.5	1.5	3.5	1.3	3.8	0.6	4.0	0.0
음란출판물	3.6	0.9	3.6	0.7	3.6	0.7	2.8	1.3
매매음	4.0	1.6	4.0	1.5	4.0	1.5	2.8	1.3
남녀평등	2.2	1.0	2.2	1.1	2.3	0.7	2.5	1.3
성병	3.6	0.9	3.6	0.7	3.8	0.4	3.0	1.4
이혼	2.7	1.2	2.6	1.0	3.1	0.9	2.3	1.0
계	76.9	-	77.6	-	78.1	-	64.8	-

과 같다. 태도문항에 대한 각 문항별 점수를 보면, 3점 이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인 항목은 30~39세에서는 9개, 40~49세에서는 8개, 50~59세에서는 8개, 60세 이상에서는 4개였다. 그 항목은 自慰行爲, 人工妊娠中絕, 同性愛, 婚前性行爲, 性被害, 婚外性行爲, 응란필름과 出版物, 實買淫, 性病이었다. 특히 2차 성징, 월경, 생식기 청결, 출산, 가족계획, 결혼, 피임 항목에는 2점 이하로 긍정적이었다.

學父母의 年齡別 教育程度에 따른 態度程度는 표 12와 같다. 年齡과 教育程度에 따른 態度程度에有意한 차이는 없었다.

學生과 學父母의 宗教에 따른 성에 관한 態度는 표 13과 같다. 學生과 學父母 간에 宗教에 따른 態度程度에有意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1986년 李¹⁶⁾의 研究에서 學生의 宗教와 性에 대한 관심과는 별로 意味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報告와 같았다.

<표 12>

學父母의 연령과 教育程度에 따른 態度程度

교육정도	30~39		40~49		50~59		60~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무학	2.3		2.4	0.3	2.8	0.1		
국졸	2.4	0.2	2.4	0.2	2.5	0.2		
중졸	2.4	0.3	2.4	0.4	2.4	0.1	2.4	
고졸	2.3	0.4	2.3	0.3	2.3		2.5	
대학원졸	2.2	0.2	2.5					
대학원졸	1.8	1.0			1.5			

<표 13>

學生의 學父母의 종교에 따른 性에 대한 態度

종교	학생		학부모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불교	2.6	0.3	2.4	0.3
기독교	2.6	0.3	2.3	0.4
천주교	2.6	0.3	2.4	0.3
기타	2.5	0.3	2.1	0.2
무종교	2.5	0.4	2.4	0.3
계	2.6	0.3	2.4	0.3

4. 性教育 經驗과 希望時期

學生과 學父母의 性에 관한 教育經驗을 파악하기 위해 學生은 나열된 內容 중 教育받은 것에 표시하게 하고 學父母는 나열된 內容 중 子女에게 教育한 것에 표시하게 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 14와 같다. 學生의 경우 生殖器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 思春期 情緒, 月經과 射精內容에 60

~70% 程度의 학생이 性教育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學父母의 경우 生殖器의 構造와 인체의 변화, 思春期 情緒, 月經과 射精, 异性交際에 30%이상의 학부형이 教育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學生의 經驗率과 學父母의 經驗率에 차이가 나는 것은 學生들이 家庭 외에서 學習했음을 意味

하는 것으로 보인다.

各項目別 性教育에 적절한 시기는 學生의 경우 50.7 %와 學父母의 경우 63.4 %가 적절한時期를 표시하였다. 표 15-1과 표 15-2에서와 같이 學生과 學父母共히 中學校 1學年부터 그要求가 높은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85년 金¹⁹⁾의 研究에서 性教育 실시시기가 中學校 1學年이 적당하다고 報告한 것

과 1986년 李¹⁶⁾의 研究에서 性教育 실시시기가 入學前 8.3 %, 國民學校 5.6 學年 16.7 %, 中學校 42.7 %, 高等學校 22.7 %를 報告한 것과 1987년 李²¹⁾의 研究에서 性教育 年齡에 中學校 2學年과 中學校 3學年에 가장 많이 應答한 報告 등과 동일하게 中學校時期에 性教育이 強化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學生 및 學父母의 性教育 經驗

교 육 항 목	학생의 성교육 수혜율	학부 모의 성교육 실시율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	70.3 %	32.6 %
사춘기 정서	66.0 %	36.0 %
월경, 사정	63.0 %	38.5 %
성충동, 자위행위	19.3 %	8.6 %
성 위 생	36.5 %	25.2 %
이성 교제	35.6 %	32.1 %
결혼, 이혼	20.6 %	21.3 %
성교, 임신, 출산	24.7 %	9.6 %
가족계획, 피임, 인공임신중절	20.4 %	8.6 %
혼전, 혼외 성행위	10.1 %	8.8 %
매매음, 비정상적 성행위	14.0 %	7.6 %
성피해 방지	13.9 %	15.7 %
성에 관한 필름이나 출판물 보는 법	13.2 %	5.9 %
남녀 평등과 가족의 역할	47.3 %	26.0 %
계	32.5 %	19.8 %

<표 15-1>

學生의 性教育 希望 時期

(단위 : %)

교육항목	학년	4	5	6	7	8	9	10	11	12	무응답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		0.3	0.2	3.2	4.6	6.1	3.4	1.0	1.5	-	79.7
사춘기 정서		-	-	0.7	5.7	7.9	5.6	5.1	1.0	1.2	72.8
월경, 사정		-	0.3	0.3	4.4	5.7	6.4	6.6	1.5	2.7	72.0
성충동		-	-	0.3	6.3	9.8	15.4	18.3	4.7	3.9	40.9
성위생		-	0.2	0.3	7.8	9.8	15.2	13.9	1.5	3.2	48.1
이성교제		-	0.7	0.5	6.1	11.3	11.0	14.5	4.4	5.4	46.1
결혼, 이혼	0.2	-	0.2	4.2	5.7	9.3	15.0	7.8	15.0	42.6	
성교, 임신, 출산		-	-	0.3	4.9	7.4	10.1	15.3	9.5	10.8	41.9
가족계획, 피임, 인공임신중절		-	-	0.2	4.6	6.3	11.3	13.9	9.6	15.0	39.2
혼전·혼외 성행위		-	-	0.2	3.7	7.4	11.1	11.1	7.8	12.0	38.7
매매음, 비정상적 성행위		-	-	0.2	5.9	6.8	11.0	20.1	6.4	8.3	41.4
성피해 방지		-	0.3	0.3	9.1	12.5	17.9	21.5	4.2	6.3	27.9
성에 관한 필름과 출판물 보는 법		-	0.3	-	7.8	9.1	13.9	19.3	5.1	7.1	37.5
남녀 평등과 가족의 역할	0.2	0.2	0.5	6.8	8.1	7.9	7.9	4.1	3.0	61.3	
계		-	0.2	0.5	5.8	8.1	10.7	13.7	4.9	6.7	49.3

<표 15-2>

學父母의 性教育 希望 時期

(단위 : %)

교육항목	학년	4	5	6	7	8	9	10	11	12	무응답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		9.1	13.2	11.8	16.7	10.8	6.1	2.7	0.7		28.9
사춘기 정서		3.4	4.7	13.0	25.0	15.4	8.3	2.2	0.5		27.5
월경, 사정		5.1	11.0	12.0	15.7	10.3	7.6	1.0	1.0	1.2	35.0
성충동과 자위행위		1.2	3.2	3.2	12.7	12.7	12.5	9.6	4.4	5.4	35.0
성 행 위		6.1	5.9	5.4	16.4	12.3	9.3	6.6	2.9	3.7	31.4
이 성 교 제		1.5	1.7	3.7	13.0	13.7	12.3	10.3	5.6	6.9	31.4
결혼, 이혼		0.5	1.2	1.0	5.9	6.6	7.1	10.0	5.4	20.1	42.2
성교, 임신, 출산		0.7	1.5	2.2	10.3	6.4	11.5	11.0	5.6	15.4	35.3
가족계획, 피임, 인공임신중절		0.2	0.7	1.7	7.4	5.6	9.8	11.8	7.6	18.4	36.8
혼전·혼외 성행위		0.5	0.7	1.2	6.6	7.4	7.4	11.3	5.9	15.0	44.1
매매음, 비정상적 성행위		0.7	1.0	1.7	9.4	7.4	7.9	11.3	5.2	12.6	42.9
성피해 방지		2.9	3.9	4.4	14.0	12.3	10.3	8.8	4.9	3.7	34.8
성에 관한 필름과 출판물 보는 법		1.0	1.0	5.1	10.0	6.6	5.4	10.3	4.7	9.6	46.3
남녀 평등과 가족의 역할		5.6	3.2	6.9	13.0	9.8	8.3	5.9	2.5	4.2	40.7
계		2.8	3.8	5.2	12.6	9.8	8.8	8.1	4.1	8.3	36.6

IV. 要約 및 結論

中學校 學生과 學父母의 性教育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9년 9월 10일에서 9월 20일까지 水原市內 男學校 2個校와 女學校 2個校의 學生 592명과 學父母 408명에게 設問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本 研究對象者の 分布는 學生의 경우 女子 60.0%였고 1학년이 32.1%, 2학년이 29.1%, 3학년이 38.0%이었으며 형이나 언니가 있는 學生은 42.9%, 宗教는 佛敎가 23.8%, 기독교 31.1%, 天主敎 14.9%, 無宗教 28.0%였다.

學父母의 경우 모두 여성되었으며, 宗教는 佛敎가 37.7%, 기독교 24.0%, 天主敎 11.0%, 無宗教 20.8%였다. 教育程度는 中卒 35.0%, 高卒 44.9%이었다.

2. 學生의 性에 대한 知識 정도는 生殖器의 구조와 人體의 變化, 月經, 性衝動, 家族計劃 내

용에 50% 이상이 正答率을 나타냈으며 學年別로 지식정도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지식이 높으며, 性제유무에 따른有意한 차이는 없었다.

학부모의 性에 대한 지식정도는 性衝動과 始娠, 射精과 人工始娠中絕과 性病 內容에 50%이상의 正答率을 보였다. 年齡別 教育程度에 따른 知識程度는 高卒과 大卒群을 제외한 다른 群간에는 有意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3. 학생의 性에 대한 態度는 47.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學父母의 태도는 53.4%가 긍정적이었다. 學生의 學年과 性別에 의한 태도는 有意한 차이가 없었으며 學父母의 年齡과 教育程度에 의한 성태도에도 有意한 차이가 없었다.

4. 性에 대한 教育 經驗은, 學生의 경우 生殖器의 構造와 人體의 變化, 思春期 情緒, 月經 射精項目에 높은 經驗率을 나타냈고, 學父母의 境遇, 生殖器의 構造와 人體의 變化, 思春期 情緒, 月經, 射精, 异性交際項目에 높은 經驗率

을 보였다. 性教育 希望時期는 學生의 경우 中學校 1學年부터 그 要求가 급격히 높고 高等學校 1學年에 가장 높다. 學父母의 경우 國民學校에서부터 서서히 要求가 커지며 역시 中學校 1학년에서 급격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學生, 學父母 共히 思春期 시작을 신후하여 性教育 實施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의 結果에서와 같이 급격한 變化를 겪고 있는 中學生들의 바람직한 成長發達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成長發達 단계에 맞는 性教育이 適期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1. 하영수 : 산소아과 간호학, 수문사, 1975.
2. G. M. 블레이 : 青年心理學, 배영사, 1982.
3. 권이혁 : 最新健康學, 신광출판사, pp.396 ~ 397, 1982.
4. 김미화 : 女學生의 初經에 關한 調査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1983.
5. WHO : The Reproductive Health of Adolescents ; A strategy for action.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Switzerland, 1989.
6. 青少年육성위원회 : 青少年백서, pp. 132~146, 1988.
7. 青少年육성위원회 : 青少年백서, pp. 50 ~ 53, 1988.
8. WHO : Reproductive Health in Adolescence. position paper.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Switzerland, 1986.
9. Kenneth David and Trefor Williams : Heith Education in Schools. Harper & Row Publishers, London, pp. 207 ~ 208, 1987.
10. 김한경외 : 青少年 性相談 電話 프로그램開發 및 運營事例報告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11. 유영주 : 家族關係學, 韓國放送通信大學, p.14, 1983.
12. 松岡弘 : 性教育實踐工夫, ぎょうせん, 昭和 63.
13. Ronald and Juliett Goldman : Children's Sexual Thinking.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Boston, Melbourne and Henley, 1987.
14. 김한경외 : 韓國青少年들의 生殖保健에 關한 研究 (I),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15. 황이만 : 中學校 學生들의 性에 關한 關心, 知識, 經驗의 調査研究, 碩士學位論文, 연세大學校 教育大學院, 1983.
16. 李範秀 : 中學生의 性教育 實施를 為한 基礎 研究, 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教育大學院, 1986.
17. 조성숙 : 고교생의 性教育 필요성에 關한 고 考,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 1981.
18. 李英朱 : 中學生의 性教育에 關한 調査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1985.
19. 召소야자 : 都市青少年의 性에 關한 知識과 態度調査·연세간호, pp.1 ~ 12, 1985.
20. 金貴姬 : 一部 高等學生들의 性에 關한 態度 와 性教育要求度,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4.
21. 이인섭 : 學生青少年과 非行青少年의 性態度에 關한 比較研究, 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教育大學院, 1987.
22. 이재화 : 中高等學生들의 性問題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88.
23. 김종서, 이영덕 : 教育學 概論, 韓國放送通信大學, 1983.
24. 임종권 : 韓國의 人工妊娠中絕實態考察, 韓國 人口保健研究院, 1988.
25. 임종권외 : 韓國의 人工妊娠中絕實態, 韓國 人口保健研究院, 1989.
26. 남정자외 : 學校保健教育 改善에 關한 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27. 정재호 : 男子中學生의 性發達水準 및 意識 調査,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4.